

## 부산·경남지역 표준여성과 비만여성의 기성복 치수 만족도 비교

오영순·이정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Comparison of Satisfaction with the Size of Ready-made Clothing between Normal and Obese Women in the Busan and Gyeongnam Area

Oh, Young Soon · Lee, Jeong Ran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compare the size of ready-made clothes for different body shapes and body sizes, and to discover th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the size of ready-made clothes. The subjects were women in their 20s and 30s from Busan and Gyeongnam. The women were classified into groups: normal weight, overweight, and obese, using the Body Mass Index (BMI). The comparison of the body siz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hapes; the average BMI in overweight women was 24.2 while that of obese women was 27.6. For the clothing size for each body shape, obese women most often wore size 77 and size 88, regardless of the sizes of upper and lower garments. The size consistency of upper and lower garments was the lowest in obese women. However, in most of the shapes, women tended to choose larger-sizes for lower garments than for upper ones. The more obese the subject, the less inclined they were to wear garments for their real body size. Satisfaction with the clothing siz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dy shapes; the more obese, the lower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size. As well,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clothing at certain parts was shown to be low especially in the bust measurement, shoulder width, upper garment length, crotch length, and thigh circumference. When surveyed about the use of alterations for different body shapes, the results were that over 65% of subjects did not alter upper garments regardless of their body shape. Comparatively, 68% or above of all body shapes did do alterations to lower garments for example, the length of pants or skirts.

Key words: obese women, ready-to-wear, satisfaction with the clothing size

## I. 서론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연령층에서 약 1.6배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이는 앞으로도 더욱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2006). 과거에는 연령증가에 따른 체지방의 축적 등으로 중년이후의 비만인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동차 및 엘리베이터 이용, 실내 활동의 증가 등 생활의 편리성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비만은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정호·임성건 2006). 또 비만으로 인해 고용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당하기 쉽고, 날씬한 사람에 비해 덜 지적으로 보인다고 평가된다(최영순 2000). 이에 비만여성은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중년에 비해 유행에 더 민감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복을 통한 체형의 보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성복은 획일적인 유행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신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젊은 여성을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44사이즈의 열풍으로 20,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의류업체는 77 이상의 사이즈를 생산하지 않는 곳이 많다. 사이즈를 다양하게 생산하는 업체는 대개 중년브랜드로 한정되어 있어 젊은 여성들이 또래에 비해 유행에 뒤떨어져 보인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비만여성은 기성복 구입에 큰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쇼핑할 수 있는 빅 사이즈 인터넷 쇼핑몰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비만여성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체형의 신체 여러 부위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축소·확대하고 있어 의복 맞춤새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비만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체형특성을 고려한 치수체계 연구(이진희 1996; 하희정

2001)와 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한애미·박정순·이정순 1987; 양정은 2004; 정동림 2002) 등으로 체형연구, 치수체계 연구, 원형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성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중년 여성의 기성복 구입실태 및 치수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경미·최혜선 1995; 김인화·권수애, 2007)로 주로 비만 비율이 높은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만여성의 기성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진희 2002; 최영순 2001; 김희숙 2006)라 하더라도 연구대상 중 20대, 30대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실제 소비자들이 착용하는 기성복 치수와 신체치수와 관련하여 표준체형과 비만체형 간의 의복 치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보고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의 20, 3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지수 BMI를 통해 체형을 표준, 과체중, 비만의 3그룹으로 분류하고, 비만도에 따라 기성복 치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실제 착용하는 기성복의 치수와 신체 치수의 적합성을 조사하여 비만한 여성들의 기성복 선택의 실태를 제시함으로써 비만 여성의 의복 구매 및 의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은 부산·경남 도내에 거주하는 20세~39세까지의 성인 여성으로 하였다. 표준체형과 비만체형의 기성복 구매실태 및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과 과체중 이상의 여성을 각 100명 씩 임의 표집 하여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 중 자료가 미비한 것을 제외한 190부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9월 17~21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을 수정·보완하였고 2007년 10월 15일 ~ 11월 3일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 30대의 비율이 골고루 분포되었고, 직업은 학생이 가장 많고 사무직, 주부,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N	%	Total	
Age	20~29	101	53.2	190(100.0%)
	30~39	89	46.8	
Occupation	Seller	9	4.7	190(100.0%)
	Producer	11	5.8	
	Specialist	31	16.4	
	Clerk	40	21.1	
	Housewife	37	19.5	
	Student	45	23.7	
	The other	17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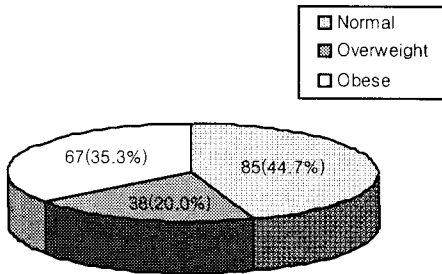


Fig. 1. The number of persons by BMI

2. 연구대상의 체형분류

체형을 분류하기 위한 선행연구(진은희 2007; 성민정·김희은 2001)를 통해 최근 비만지수로 대표되는 BMI를 이용하였으며, BMI 18.5~23kg/m<sup>2</sup> 미만은 표준, 23~25 kg/m<sup>2</sup>미만은 과체중, 25kg/m<sup>2</sup>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BMI에 따른 체형별 인원분포는 Fig. 1과 같다.

3.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선행연구(이경미·최혜선 1995; 최영순 2000; 김인화 2006)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연령, 직업 등의 일반적 사항 4문항, 신체치수에 관한 5문항, 기성복 치수선택에 관한 2문항, 실제 착용하는 의복의 치수 만족도 및 의복의 부위별 만족도에 관한 21문항, 수선경험 및 수선방법에 관한 20문항으로 총 5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체치수를 묻는 문항은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평균, 표준편차의 기본 통계량과 빈도 분석,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체형별 신체치수 비교

체형별 신체치수를 살펴보면(Table 2), 5개의 신체항목과 BMI에서 체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만체형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몸무게는 비만체형의 경우 표준편차가 8.1을 나타내어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size of body shapes

	Normal		Overweight		Obese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Height(cm)	162.6 a	4.4	159.7 b	3.9	161.6 a	5.6	5.029**
Weight(Kg)	54.6 c	3.7	61.7 b	3.5	72.2 a	8.1	184.031***
Bust girth(cm)	84.9 c	4.2	91.9 b	4.2	99.6 a	5.8	173.797***
Waist girth(cm)	70.2 c	3.5	75.2 b	2.9	82.1 a	5.5	146.928***
Hip girth(cm)	95.0 c	4.1	99.5 b	3.7	106.3 a	6.1	100.617***
BMI	20.7 c	1.2	24.2 b	0.4	27.6 a	2.1	398.242***

\*p<.05, \*\*p<.01, \*\*\*p<.001), a>b>c: Duncan-test

인의 차가 큰 것을 나타내었다. BMI는 표준체형 20.7, 비만체형 27.6을 나타내어 두 체형간의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과체중체형의 경우에는 BMI의 최대값이 24.9로 비만기준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어 비만이 될 소지가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체형별 의복 치수 선택 및 치수 일치도

1) 착용하는 의복 치수

체형별로 착용하는 상의치수(Fig. 2)와 하의치수(Fig. 3)를 살펴보았다.

상의 치수의 경우에는 표준체형은 55사이즈(48.2%)나 66사이즈(49.4%)의 치수를 많이 착용하였으며, 과체중체형은 66사이즈(63.2%)나 77사이즈(28.9%)를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체형은 77사이즈(41.8%), 88사이즈(21.0%)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99사이즈나 100사이즈 이상을 착용하는 비율도 13.5%를 나타내었다.

하의 치수는 표준체형은 66사이즈(60.0%)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과체중체형은 66사이즈(50.0%)나 77사이즈(44.7%)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상의 치수에서는 55사이즈를 착용한다는 응답이 있었던 반면 하의 치수에서는 없었다. 비만체형은 83.1%가 77사이즈나 88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99사이즈나 100사이즈를 착용하는 비율도 14.9%로 상의에 비해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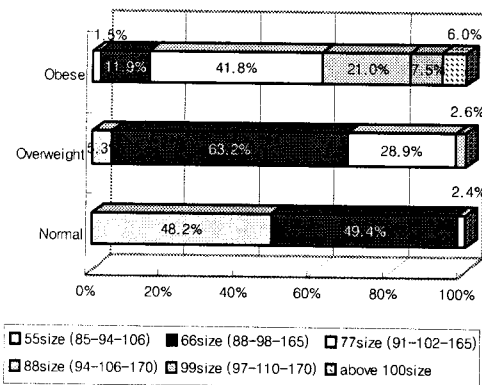


Fig. 2. The size of upper garment of body shapes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의, 하의에 관계 없이 표준체형은 55, 66사이즈, 과체중체형은 66, 77사이즈, 비만체형은 77, 88사이즈를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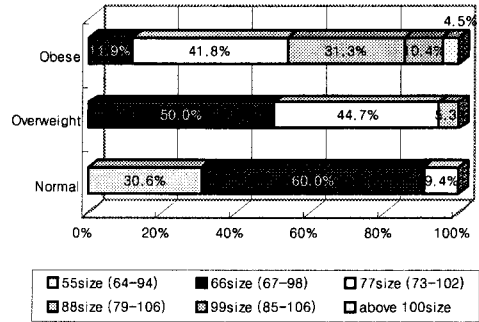


Fig. 3. The size of lower garment of body shapes

2) 상의치수와 하의치수 일치도

체형별 응답자가 착용하는 상의치수와 하의치수가 일치하는지를 Fig. 4에 제시하였다. 표준체형은 상의치수와 하의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65.9%이고, 상의치수가 하의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29.4%, 상의치수가 하의치수에 비해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4.7%였다. 과체중체형은 상의치수와 하의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55.3%이고 상의치수가 하의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34.2%, 상의치수가 하의치수에 비해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0.5%였다. 비만체형은 상의치수와 하의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68.7%이고, 상의치수가 하의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7.9%, 상의치수가 하의치수에 비해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3.4%였다.

상의치수와 하의치수가 일치하지 않게 착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체형은 과체중체형이며 가장 낮은 체형은 비만체형이었다. 상의치수와 하의의 치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의치수를 하의치수보다 크게 착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형에서 상의치수를 하의치수보다 작게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의치수를 하의치수보다 크게 착용

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석혜정과 김인숙의 연구(2003)에서 20~59세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체형별 재킷치수와 바지치수의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표준체형은 재킷치수를 바지치수에 비해 작게 착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비만체형은 재킷치수를 바지치수에 비해 크게 착용하는 비율이 재킷치수를 바지치수보다 작게 착용하는 비율보다 높아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석혜정과 김인숙 연구의 비만체형은 상대적으로 상체비만이 많은 중년층의 비율이 다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SIZE KOREA에서 비만체형을 분류한 결과 20, 30대 여성의 경우 상체비만보다는 하체비만의 삼각형비만형이 많은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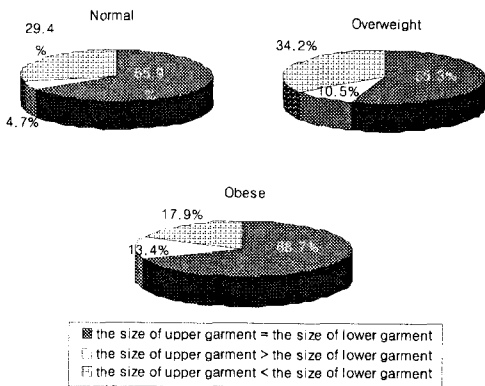


Fig. 4. The consistency of the sizes of upper and lower garments

### 3) 신체 치수와 의복 치수 일치도

체형별 응답자의 신체치수와 실제 착용하는 상의치수가 일치하는지를 Fig. 5에 제시하였다.

표준체형은 신체치수와 착용하는 상의치수가 일치하는 경우가 61.3%이고, 신체치수에 비해 상의치수를 작게 착용하는 경우는 17.6%, 신체치수에 비해 상의치수를 크게 착용하는 경우는 21.1%였다. 과체중체형은 일치하는 경우가 60.5%이고

신체치수에 비해 상의치수를 작게 착용하는 경우가 39.5%였다. 비만체형의 경우에는 일치하는 경우가 34.3%이고, 신체치수에 비해 상의치수를 작게 착용하는 경우는 62.7%, 신체치수에 비해 상의치수를 크게 착용하는 경우는 3.0%로 나타났다.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자신의 신체치수와 일치하지 않는 상의치수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만체형은 자신의 신체치수와 일치하는 상의치수를 착용하는 경우보다 상의치수를 작게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신체치수와 착용하는 상의치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준체형은 신체치수에 비해 크거나 작은 상의치수를 착용하는 비율이 비슷한 반면, 과체중과 비만체형은 신체치수에 비해 작은 상의치수를 착용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았다. 이는 비만할수록 신체치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하여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복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또, 자신의 신체치수보다 상의를 작게 입을으로써 좀 더 날씬해 보이고 싶고, 표준체형의 집단에 포함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비만체형은 신체치수에 비해 큰 상의치수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고도비만이 포함되어 자신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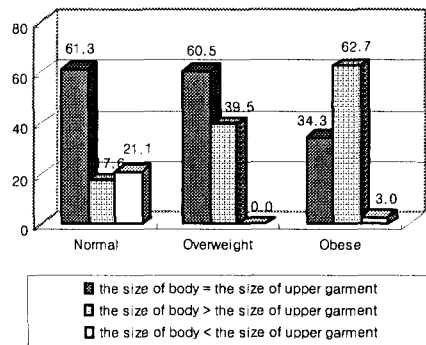


Fig. 5. The consistency of the sizes of body and upper ga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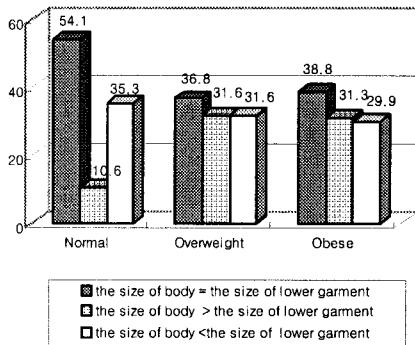


Fig. 6. The consistency of the sizes of body and lower garment

체형별 응답자의 신체치수와 하의치수가 일치하는지를 Fig. 6에 제시하였다.

표준체형은 신체치수와 하의치수가 일치하는 경우가 54.1%이고, 신체치수보다 하의치수를 작게 착용하는 경우가 10.6%, 신체치수보다 하의치수를 크게 착용하는 경우가 35.5%였다. 과체중체형은 신체치수와 하의치수가 일치하는 경우가 36.8%이고, 신체치수보다 하의치수를 작거나 크게 착용하는 경우가 각각 31.6%였다. 비만체형은 신체치수와 하의치수가 일치하는 경우가 38.8%였고, 신체치수보다 하의치수를 작게 착용하는 경우는 31.3%, 신체치수보다 하의치수를 크게 착용하는 경우는 29.9%로 나타났다.

과체중이나 비만체형은 표준체형에 비해 신체치수와 일치하지 않는 하의치수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신체치수와 하의치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준체형은 신체치수에 비해 하의치수를 크게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과체중이나 비만체형은 신체치수에 비해 큰 하의치수를 착용하거나 작은 하의치수를 착용하는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의 경우 신체치수에 비해 큰 치수를 착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던 상의와 다르게 신체치수에 비해 큰 하의치수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의의 경우 상의에 비해 기능성을 많이 요구하는 의복이므로 자신의 신체치수보다 큰 하의를 선택함으로써 동작의 편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비만이 증가할수록 신체치수에 비해 의복 치수를 작게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 하의보다는 상의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는 젊은 비만여성의 경우 착용 시 만족도는 낮더라도 자신의 신체 치수보다 의복 치수를 작게 선택함으로써 표준체형의 집단에 포함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의류업체에서는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여 비만여성을 위한 적절한 치수 체계를 계획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 3. 체형별 의복의 치수 만족도

#### 1) 의복의 치수 만족도

체형별로 본인이 착용하는 치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잘맞는다(1)’에서 ‘잘안맞는다(5)’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Table 3), 체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준체형과 과체중은 3이상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것에 비해 비만체형은 2.8로 기성복 치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만체형의 경우 의복 선택 시 신체 치수보다 의복 치수를 작게 구입한다는 결과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Satisfaction with the clothing size

	Mean	S.D	F-value
Normal	3.3 a	0.4	
Overweight	3.1 a	0.3	6.817***
Obese	2.8 b	0.6	

\*p<.05, \*\*p<.01, \*\*\*p<.001, a>b: Duncan-test

#### 2) 의복의 부위별 만족도

의복의 부위별 만족도의 설문내용은 박우미·위은하(2003)의 연구를 기본으로 기성복에 대한 신체부위별 맞춤새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잘안맞는다(1)’에서 ‘잘맞는다(5)’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상의는 목둘레, 어깨너비, 진동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

이둘레, 소매길이, 소매통, 상의길이, 상의의 맞음새, 하의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 밑위길이, 대퇴둘레, 바지/스커트 통, 바지/스커트 밑단둘레, 바지/스커트 길이, 하의의 맞음새 등으로 체형에 따른 의복의 부위별 만족도에 대한 설문평가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의의 경우 허리둘레, 소매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체형은 대부분의 항목이 3이상이며, 전체적인 상의 맞음새 만족도가 3.5로 다른 체형에 비해 대체로 만족하였다. 과체중은 전체적인 상의 맞음새 만족도는 3.1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나, 가슴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에서는 2.8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과체중체형의 경우 기성복 구입 시 자신의 신체치수보다 작은 표준체형의 의복 치수를 구입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비만체형의 경우에는 목둘레와 허리둘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2.9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어깨너비와 가슴둘레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성복의 사이즈가 표준체형을 기초로 비례적으로 확대되어 비만여성의 체형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만여성의 의복 제작 시에는 단순히 길이항목과 둘레항목을 일률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형별로 심미성과 기능성이 고려된 패턴부위별 여유량을 산출하여 원형제작을 해야 할 것이다.

하의의 경우에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준체형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3이상으로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과체중과 비만체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만족도가

Table 4. The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clothing parts

	Normal		Overweight		Obese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Upper garment	neck girth	3.5 a	0.7	3.4 a	0.5	3.1 b	0.6	9.266***
	shoulder width	3.5 a	0.8	3.2 b	0.7	2.9 c	0.7	12.762***
	armhole girth	3.3 a	0.8	3.0 b	0.7	3.0 b	0.7	4.369**
	bust girth	3.3 a	0.8	2.7 b	0.7	2.6 c	0.7	15.594***
	waist girth	3.3	0.8	3.0	0.6	3.1	0.8	2.502
	abdominal girth	3.2 a	0.7	2.8 b	0.6	2.8 b	0.7	5.232**
	hip girth	3.1 a	0.7	2.7 b	0.7	2.9 b	0.8	3.458*
	sleeve girth	3.2	0.8	3.1	0.7	2.9	0.8	2.531
	sleeve length	3.1 a	0.7	2.8 b	0.7	2.8 b	0.9	4.167**
	upper garment height	3.3 a	0.8	2.9 b	0.6	2.8 b	0.8	7.472***
upper garment fit	3.5 a	0.6	3.1 b	0.4	2.9 b	0.6	17.391***	
Lower garment	waist girth	2.9	0.8	2.8	0.6	2.9	0.7	0.214
	hip girth	2.9	0.7	2.7	0.7	2.8	0.8	0.952
	abdominal girth	3.1 a	0.7	2.8 b	0.5	2.8 b	0.6	4.465**
	crotch length	3.1 a	0.7	2.9 a	0.6	2.6 b	0.7	10.944***
	thigh girth	3.0 a	0.7	2.5 b	0.8	2.5 b	0.8	8.539***
	pants/skirt girth	3.3 a	0.7	3.0 b	0.6	2.9 b	0.7	6.427**
	pants/skirt hem girth	3.3 a	0.7	2.9 b	0.7	3.0 b	0.7	5.984**
	pants/skirt length	3.0 a	0.8	2.7 b	0.7	2.7 b	0.7	3.154*
	lower garment fit	3.2 a	0.6	2.9 b	0.4	2.8 b	0.6	6.687**

\*p<.05, \*\*p<.01, \*\*\*p<.001, a>b>c: Duncan-test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비만체형의 경우에는 밑위길이, 대퇴둘레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짧은 밑위길이 비만여성의 체형을 커버하지 못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퇴둘레의 낮은 만족도(2.5)는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하의 선택 시 자신의 신체치수와 일치하지 않는 치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4. 체형별 수선 경험 및 수선 방법

체형별로 상의, 하의 수선경험을 Fig. 7에 제시하였다. 상의를 수선하는 경우는 표준체형 27.1%, 과체중 34.2%, 비만 28.4%로 수선하는 비율이 수선하지 않는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화와 권수애(2007)의 선행연구결과 중년여성은 기성복 재킷 구입 시 수선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 55% 이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젊은층의 경우 자신의 몸을 의복에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의복의 구매 장소로 보세가게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주로 이용하여 저렴한 의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수선비율이 중년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과체중체형의 경우 상의의 수선 비율이 다른 체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선을 통해 표준집단에 포함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하의를 수선하는 경우는 모든 체형에서 수선을 한다는 응답이 6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의 경우 둘레부위의 수선보다 스커트나 바지 길이 등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리는 수선율이 약 60%로 월등히 높아 체형에 관계없이 수선율이 상의에 비해 높다는 김양원(1999)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아이템의 부위별 체형에 따라 수선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chi^2$ 값의 유의 수준이 0.05 이하인 부위만 Table 5에 제시하였다.

체형별로 상의에서만 유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부위는 재킷의 가슴둘레, 소매통, 소매길이, 상의 길이였다. 가슴둘레나 소매통 등의 둘레부위에서는 과체중이나 비만체형의 경우 신체치수보다 작은 치수의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줄이기보다 늘리는 수선이 많고, 소매길이나 상의길이 등의 길이부위에서는 체형에 관계없이 늘이기보다

Table 5. The mending method of item

Part	Method	Normal	Overweight	Obese	Total	N(%)
						$\chi^2$ -value
Bust girth	lengthen	1(1.2)	2(5.3)	7(10.4)	10(5.3)	12.290**
	shorten	1(1.2)	0(0.0)	1(1.5)	2(1.1)	
	total	2(2.4)	2(5.3)	8(11.9)	12(6.3)	
Sleeve girth	lengthen	0(0.0)	1(2.6)	6(9.0)	7(3.7)	10.574*
	shorten	0(0.0)	0(0.0)	1(1.5)	1(0.5)	
	total	0(0.0)	1(2.6)	7(10.4)	8(4.2)	
Jacket	lengthen	0(0.0)	1(2.6)	5(7.5)	6(3.2)	11.737**
	shorten	7(8.2)	8(21.1)	11(16.4)	26(13.7)	
	total	7(8.2)	9(23.7)	16(23.9)	32(16.8)	
Jacket length	lengthen	0(0.0)	0(0.0)	3(4.5)	3(1.6)	13.247**
	shorten	2(2.4)	4(10.5)	6(9.0)	12(6.3)	
	total	1(1.2)	4(10.5)	7(10.4)	15(7.9)	

\*p<.05, \*\*p<.01, \*\*\*p<.001



줄이는 수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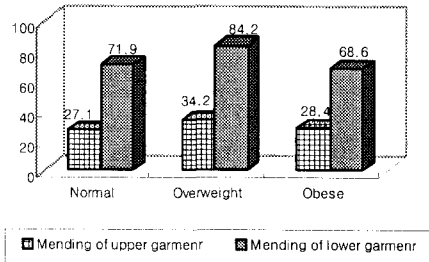


Fig. 7. The mending experience of upper and lower garments

#### IV. 결론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의 20, 3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지수 BMI를 통해 표준, 과체중, 비만으로 체형을 분류하고, 체형별 착용하는 기성복 치수와 신체치수 비교 및 기성복 치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설문조사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형별 신체치수를 비교한 결과 체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과체중체형의 BMI는 24.2, 비만체형은 27.6이었고 비만체형 몸무게에서 개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체형별 착용하는 의복 치수는 상의, 하의 치수에 관계없이 표준체형은 55, 66사이즈, 과체중체형은 66, 77사이즈, 비만체형은 77, 88사이즈를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치수와 하의치수의 일치도는 과체중체형이 가장 낮으며 대부분의 체형에서 상의치수에 비해 하의치수를 더 크게 착용하였다.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신체치수와 상의·하의치수가 일치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신체치수에 비해 의복치수를 작게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젊은 비만여성의 경우 착용 시 편안함보다는 신체치수보다 작은 의복을 선택함으로써 표준체형의 집단에 포함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3. 의복의 치수 만족도는 체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비만할수록 치수 만족도가 낮았으며 부위별 맞춤새 만족도는 가슴둘레, 어깨

너비, 상의길이, 밑위길이, 대퇴둘레 등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현 기성복이 체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으로 유행스타일로 인해 비만체형의 경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복 선택 시 신체치수와 일치하지 않는 의복 치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만여성의 의복 제작 시에는 체형별로 심미성과 기능성이 고려된 패턴부위별 여유량을 산출하여 원형제작을 해야 할 것이다.

4. 체형별 수선경험은 상의의 경우 체형에 관계없이 65% 이상이 수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층의 경우 자신의 몸을 의복에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의복의 구매 장소로 보체가게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주로 이용하여 저렴한 의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수선비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의의 경우에는 모든 체형에서 68% 이상이 길이 등의 수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별로 아이템 수선방법을 살펴본 결과 재킷의 가슴둘레, 소매통, 소매길이, 상의길이에서 유의차를 보였으며, 둘레부위에서는 과체중이나 비만체형의 경우 늘리는 수선이 많고 길이부위에서는 체형에 관계없이 줄이는 수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젊은 비만여성의 경우 기성복 치수 선택과 만족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류업체에서는 비만여성의 체형의 특성을 고려한 의복의 치수 세분화뿐만 아니라 의복치수선택 및 착용에 따른 심리까지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부산·경남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과체중 또는 비만여성의 경우 비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설문 응답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또, 신체 치수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스스로 기입하게 하였는데 응답자 중 자신의 정확한 신체 치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추후에는 정확한 인체측정을 바탕으로 비만여성의 의복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양원(1999) 여성용 기성복에 대한 적합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211-217.

김인화(2006) 중년여성의 재킷 패턴 개발을 위한 착용만족도와 맞춤새 평가.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인화·권수애(2007) 중년 여성의 기성복 재킷 구입실태 및 만족도. 한국의류학회지31(3), 398-409.

김정호·임성견(2006) 대학생들의 비만인에 대한 인식.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2006(0), 242-243.

김희숙(2006) 의복설계를 위한 비만여성의 기성복 만족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64-70.

박우미·위은하(2003) 중년여성의 신체 형태 특징 유형별 기성복 만족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3), 235-243.

석혜정·김인숙(2003) 성인여성의 연령대별 기성복 치수 선택 실태 조사 -구호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8), 63-77.

성민정·김희은(2001) 비만판정지수에 의한 여대생의 체형분류 및 체형인지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3), 227-234.

양정은(2004) 3차원적 체형 채취법에 의한 Plus-size 여성의 체형별 토루소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미·최혜선(1995) 중년 여성 기성복의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87-201.

이진희(1996) 성인 비만 여성의 체형특징 및 기성복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진희(2002) 성인여성의 체형에 따른 기성복 적합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2), 189-197.

정동림(2002) Plus-size 여성체형을 위한 재킷원형 개발 및 면 분할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은희(2007) 남, 여대학생들의 신체상 인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1), 67-74.

최영순(2000) Plus-size 소비자의 의복행동에 따른 One-to-one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영순(2001)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기성복 불만족에 관한 연구 -비만체형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0(3), 291-301.

하회정(2001)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체 특성과 의류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애미·박정순·이정순(1987) 비만체형을 위한 기본 Bodice 원형연구 -중년기 부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5(3), 140-158.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20, 30대의 체중증가 40대 이상보다 급증. (2007. 11. 14). <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2006) 우리나라의 비만현황과 그 대책을 해부한다. (2007. 11. 14). <http://www.mohw.go.kr/>.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6) 한국인 비만체형의 분류와 유형별 특징 분석. (2008. 1. 7) 인체치수조사사업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